

소녀가장 성폭행

11살 자살기도 중태...“주민 10여명 20여차례”

초등학교 소녀가장이 마을 주민 10여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

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이 아무개(11·초등학교 6년)양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“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정 아무개(13)군 등 마을 사람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”는 내용의 일기를 남긴 뒤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.

이양의 일기에 따르면 이양을 성폭행한 사람은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·직장인까지 12~14명에 이르며, 이들 중 일부는 이양에게 강제로 본드를 들이마시게 했다.

아산경찰서는 6일 곽아무개(20·대학생)씨 등 8명을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(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)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, 이날 저녁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.

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난 지 10

개월 만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3살 때 아버지를 여윈 뒤 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(74)와 함께 살아온 소녀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.

아산/황순구 기자